

권 두 언

산업이 발전해가며 재료의 부식문제가 더욱 크게 대두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자력과 화력 발전의 설비 부식은 운전효율과 안전성의 증진에 직결됨으로 부식공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식문제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부식연구나 부식기술자의 양성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취약한 산업구조에 그 원인을 돌리기도 하지만 우리 부식연구자와 기술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1971년 한국부식학회가 창립된 후 매년 학회지 발간과 학술대회, 부식강습회, 부식 심포지움 등의 활동을 계속해오며 학회 회원이 증가 하기는 했으나 그 동안 우리 산업의 규모와 수준의 발전을 감안한다면 보다 더 활발한 학회활동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세 분야의 부식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의 “에너지 설비의 부식과 대책” 특별주제 발표회는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첫번째 시도입니다. 과거보다는 부식전문가의 수가 많아졌다고 해도 아직 선진 공업국에 비하면 세부분야별 연구자와 기술자는 손꼽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경험있는 기술자와 연구자가 많은 분야의 하나인 열교환기, 증기발생기 등의 수증 부식과 가스터빈의 고온산화를 주제로 하여 그 부식현황과 대책기술을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주제 발표회에서 완벽함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으나 여기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는 필독의 자료가 되고 앞으로의 연구나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발표회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세심한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담당한 본 학회의 황일순 이사께 감사를 드리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주제발표회가 활성화되어 우리 나라 부식공학의 전반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한국부식학회 회장 강 탁